아~ 가을 완연한 가을날씨를 보인 8일 광주시 남구 사직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광주 시가지가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시원하게 펼쳐지고 있다. 기상청은 주말인 10~11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조금 끼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외도’ 교수 이혼 위자료 적정선은 얼마?

## 광주가정법원 설문…여성 1억·남성 8천만원 받아야

## 시민 77% “현행법 1000만~5000만원 너무 적다”

A(35)씨는 국립대 교수이고, B(여·35)씨는 종합병원 전문의다. 이들은 중매로 만나 2013년 결혼했다.

하지만 A씨는 2014년부터 유흥업소와 모텔을 드나들더니 2015년 2월에는 학회를 핑계로 다른 여성과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 서로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를 주고받더니 4월께 아예 이 여성과 살림을 차려 자동차·생활비를 주는 등 두집살림을 해왔다. 아내는 이같은 사실을 1년 뒤에야 알게 됐다.

‘외도 교수’의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할까?

답은 최대 5000만원이다. 현행법이 1000만~5000만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민들은 1억원 정도는 받아야할 것으로 봤다. 여성(1억820만원)이 남성(8030만원)보다 더 많았고, 일반인(1억440만원)이 상담사(8770만원)·법률전문가(6220만원)보다 도덕적 잣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한 듯 위자료가 많았다.

광주가정법원(법원장 장재윤)은 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청사 중회의실에서 법학교수·변호사·법무사·상담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한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일반인과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상담기관 관계자 등 365명을 대상으로 이혼 위자료에 대한 설문조사(개별면접방식)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정행위에서의 평균 위자료는 9580만원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평균 약 8030만원, 여성은 평균 1억820만원이었다. 또 결혼 20년차 50대 의처증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평균 위자료가 6120만원이었다. 남성은 5180만원, 여성은 6890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양육 자녀의 유무, 혼인기간의 장단 등이 위자료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무상 인정되는 1000만~5000만원의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77.2%)은 ‘너무 적거나 비교적 적다’고 응답했다.

세미나에서는 부정행위·가정폭력 사안에 대한 적정한 위자료 액수와 사실혼·재혼·어린 자녀·재산상황 등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성두 변호사는 종래 판례에서 언급되던 위자료 참작사유인 당사자의 재산상태·연령·직업·성별·혼인경력 및 기간 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어졌으므로 위자료를 증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태호 변호사는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와 일반인이 기대하는 위자료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는 의식이 깊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설문조사 결과, 가정폭력과 부정행위 사안을 놓고 3000여만원의 편차가 나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장재윤 광주가정법원장은 “당사자가 경험한 고통을 객관적으로 계량화 할 잣대를 찾기 쉽지 않다. 각계의 의견을 모아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 ‘여직원 성희롱’ 전남 산하기관장 직위 해제

전남도 산하기관장이 저녁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볼을 맞대고 러브샷을 해 성희롱으로 간주돼 직위해제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장 A씨는 최근 저녁 회식자리에서 20대 여직원 볼을 맞대고 러브샷을 한 사실이 알려져 직위 해제됐다.

도 관계자는 “여직원이 신고한 게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 정보가 들어와 자체 적발했다”며 “해당 여직원은 A씨에 대한 징계를 원하기보다는 같이 근무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성희롱에 해당해 일단 직위해제하고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뜸 06:11 / 해짐 18:48 / 달뜸 12:59 / 달짐 23:36

**아침 안개 주의 하세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다.

◇ **지역별 날씨** (℃)

| | | | | | |
|---|---|---|---|---|---|
| 광 주 | 구름많음 | 20/30 | 보 성 | 구름많음 | 17/29 |
| 목 포 | 구름많음 | 21/28 | 순 천 | 구름많음 | 20/30 |
| 여 수 | 구름많음 | 21/28 | 영 광 | 구름많음 | 18/29 |
| 나 주 | 구름많음 | 18/30 | 진 도 | 구름많음 | 19/28 |
| 완 도 | 구름많음 | 20/29 | 전 주 | 구름많음 | 20/29 |
| 구 례 | 구름많음 | 17/29 | 군 산 | 구름많음 | 20/28 |
| 강 진 | 구름많음 | 18/29 | 남 원 | 구름많음 | 18/28 |
| 해 남 | 구름많음 | 18/29 | 흑 산 도 | 구름많음 | 21/26 |
| 장 성 | 구름많음 | 18/29 | | | |

◇ **바다 날씨**

| |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 남부 | 앞바다 | 북서~북 | 0.5~1.0 | 북서~북 | 0.5 |
| | 먼바다 | 북서~북 | 0.5~1.5 | 북서~북 | 0.5~1.0 |
| 남해 서부 | 앞바다 | 북서~북 | 0.5 | 북서~북 | 0.5 |
| | 먼바다(동) | 북서~북 | 1.0~1.5 | 북서~북 | 1.0~1.5 |
| | 먼바다(서) | 북서~북 | 1.0~1.5 | 북서~북 | 1.0~1.5 |

◇ **생활지수**

| | |
|---|---|
| 식중독 | 주의 |
| 자외선 | 높음 |
| 미세먼지 | 한때나쁨 |

◇ **물때**

| | 밀물 | 썰물 |
|---|---|---|
| 목포 | 06:32 | 11:44 |
| | 19:19 | 00:00 |
| 여수 | 00:55 | 07:00 |
| | 13:45 | 20:05 |

◇ **주간 날씨**

| 10(토) | 11(일) | 12(월) | 13(화) | 14(수) | 15(목) | 16(금) |
|---|---|---|---|---|---|---|
| 18/29 | 20/29 | 20/30 | 20/29 | 20/28 | 19/28 | 18/28 |

# 광주·전남교육청 올 누리예산 전액 편성

## 광주, 유치원 185억·어린이집 670억…전남, 어린이집 508억원

광주·전남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키로 했다. 다만, 광주교육청의 경우 광주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1075억을 받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광주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실현될 지 미지수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달 28일 광주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85억원을 편성하는 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과 재정 형편을 내세워 편성치 못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670억)은 광주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는 게 광주교육청 설명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신설 학교 용지 금액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주는 제도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른바 학교용지법)에 명시돼 있다.

교육청이 광주시에서 받을 학교용지부담금은 1075억. 지난 1999년부터 쌓인 금액이지만 구체적 확보 계획은 없는 상태로, 광주시도 여태껏 지급 계획을 제시한 바 없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됐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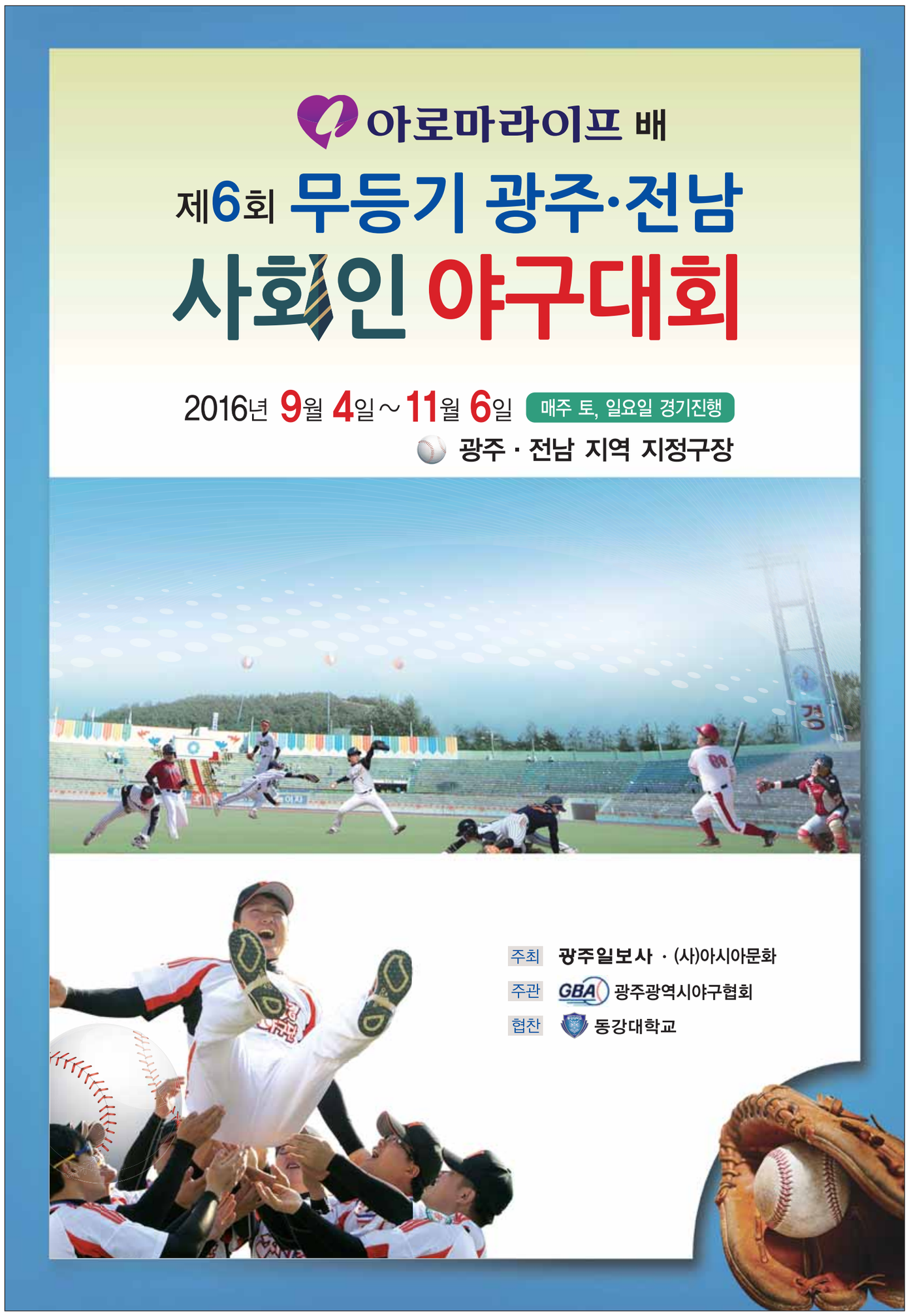
반면, 전남교육청은 오는 13일 전남도의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개월분(508억)을 편성한 예산안을 제출키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정부 추경으로 추가 교부될 보통교부금(1152억원)을 활용, 누리과정 부족분 을 조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추석 방학 최장 9일…난감한 맞벌이

## 교육청 12·13일 재량휴업일 지정

추석 연휴를 앞둔 학부모들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재량휴업일’에 따른 연휴로 최장 9일까지 학교가 쉬면서. 직장 문제로 휴가를 내기 쉽지 않은 맞벌이 부부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8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초·중·고교 164개교가 12일과 13일을 재량휴업일로 정하면서 추석 연휴를 포함, 5일간 ‘단기방학’에 들어간다. 주말까지 치면 무려 ‘연속 9일’에 달해 ‘가을에 찾아온 방학’이라는 말도 나온다.

광주에서는 송학·삼육초, 동아여중, 호남삼육중·고, 광주세광학교가 주말을 포함, 9일간의 ‘가을방학’을 갖는다. 지산·서석초의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이후 19일을 재량휴업일로 정해 개교기념일(20일)까지 일주일간 쉰다.

전남에서는 초등 77곳, 중등 57곳, 고등 16곳이 주말을 포함 10일부터 9일간 수업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행을 계획한 가족들도 적지 않다. 반면, 학생은 방학이지만, 휴가 기간이 아닌 학부모들은 난감하다. 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몇몇 애들만 앉아 있을까 싶어 걱정이고 집에 둔 아이 점심을 어떻게 먹여야 할 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